

2019 대한정치학회·한중교류연구소
·아시아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중국의 정치발전과 확대



- / 일시 : 2019. 12. 17.[화], 15:00~18:10
- /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
- / 주최 : 대한정치학회·한중교류연구소·아시아연구소

프로그램

15:00~15:20(20')	<input type="checkbox"/> 등록 (방명록 서명)
15:20~15:30(10')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진행사회 : 하대성(경북대학교) 인사말 : 박광득(대한정치학회장) 신영호(한중교류연구소장)
주 제 발 표 및 토 론	
15:30~16:20(50')	<input type="checkbox"/> 제1세션 사회 : 이성환(계명대학교) “중-아세안의 황금 10년”과 일대일로 연결 • 발표 : 정호경(금오공과대학교) • 토론 : 서보근(경일대학교)
16:20~16:30(10')	Coffee Break
16:30~17:20(50')	<input type="checkbox"/> 제2세션 사회 : 이성환(계명대학교) 중국의 정치발전모델과 요소 • 발표 : 방성운(강원관광대학교) • 토론 : 이정태(경북대학교)
대한정치학회 연말 총회	
17:30~18:00(30')	<input type="checkbox"/> 대한정치학회 연말 정기총회
18:30~	<input type="checkbox"/> 만찬 (글로벌플라자 르네상스)



목 차



중-아세안의 “황금10년”과 일대일로 연결 7

정 호 경

중국의 정치발전 동력요소와 선택요소 39

방 성 운

중-아세안의 “황금10년”과 일대일로 연결

정 호 경*

• 목 차 •

I. 서론	IV.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세안의 연계 발전
II. 중국과 아세안 “황금10년”	V. 결론
III. 중국의 “일대일로” 제기와 추진	

I. 서론

1967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을 시작으로 설립된 아세안(ASEAN)은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캄보디아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역공동체로써 자리매김했다. 탈냉전의 갈등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아세안은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1994년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을 통해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보다 친밀한 관계를 추구했다. 비록 97년 동남아 금융위기의 시련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아세안 회원국들을 더욱 긴밀한 관계로 이끌 《ASEAN Vision 2020》¹⁾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 금오공과대학교

1) 1997년 제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아세안의 장기 발전 계획을 채택, 아세안 회원국간의 협력,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체성 및 공동역사·문화에 기초한 아세안 공동체 구현 및 대외지향적 아세안실현 등의 4대 목표를 제시. *ASEAN Vision 2020*, Kuala Lumpur, Malaysia, 15 December 1997.

지리적으로 동남아와 인접한 중국은 과거부터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부터 동남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동남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97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동남아의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보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와 지원은 아세안²⁾으로 하여금 중국을 상대로 가졌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³⁾ 2010년 GDP규모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2014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가 미국을 앞선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태도들을 봤을 때, 아세안의 회원국들이 가지는 우려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니다. 하지만 97년 금융위기 때의 중국의 태도와 94년부터 아세안이 주도한 ARF에 참여해 선린우호정책을 취하는 행동들은 중국의 부상이 아세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아세안에게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제공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없는 경제적 원조는 아세안에게 또 다른 후원자(Patron)를 제공하였다.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 동남아 영향력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2012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정부이후 “일대일로”구상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동남아에 투자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인프라 개발은 중국이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신남방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동남아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30년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가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단순 협력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할 상생번영의 파트너로 재정립하였다.⁵⁾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과 동남아지역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대일로’의 제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 글에서는 아세안과 동남아를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함께 사용함.

3) 중국은 한편으론 이 같은 노력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아세안이 가지는 소위 ‘중국위협론’을 의식했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 좀 더 가까운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아세안이 가지는 ‘중국위협론’을 뒤집고자 지속적으로 대 아세안 외교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마침내 아세안이 ‘위협’과 ‘기회’라는 두 개의 잣대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승윤·황규희 외,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pp.352-354.

4) 변창구,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1, pp.219-224.

5) “문대통령 신남방정책 안착...아세안은 상생파트너”, 《YTN》, 2019.12.02.

먼저, 양승윤 외(2003)⁶⁾에서는 역사적 배경의 관점에서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남아 각 국가별로 중국과의 역사관계 발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변창구(2009)⁷⁾에서는 아세안의 인식과 입장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질충주의의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과 아세안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이선진(2010)⁸⁾에서는 중국의 대 동남아 전략의 관점에서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일대일로’ 제기 이후의 관련 연구는 오윤아 외(2017)⁹⁾에서는 2000년 이후 동남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동남아와 중국의 교역, 투자, 개발협력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경제관계 심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주용식(2015)¹⁰⁾에서는 동남아시아가 가지는 지경학적(Geoeconomic) 차원에서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김태식(2015)¹¹⁾과 이승신 외(2017)¹²⁾에서는 각각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 분석과 ‘일대일로’ 전략을 평가하면서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부딪히는 난제들과 ‘일대일로’ 전략 대상 중 하나로서 중국-동남아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에서는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주요 국제관계 관련 간행물 12종에 수록된 동남아 문제 관련 연구는 1470편에 달하고 주 연구 분야로는 아세안, 남중국해문제, 국가별 연구, 중-아세안관계, 접경구역협력, 화교문제 등을 다뤘다.¹³⁾ 그중 赵静 외(2017)¹⁴⁾, 宗会明 외(2017)¹⁵⁾, 张晓燕 외(2017)¹⁶⁾, 李德军 외(2015)¹⁷⁾, 王艳 외(2016)¹⁸⁾ 등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의 무역

6) 양승윤·황규희 외(2003), 상거서.

7) 변창구, “중국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과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53집, 2009.

8)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JPI 정책포럼』, 2010-7호, 2010.

9) 오윤아 외,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17 No.2, 2017.

10) 주용식,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전망 분석: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집 2호, 2015.

11) 김태식,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주요 난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3집 4호, 2015.

12) 이승신 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13) 罗仪馥, “中国的东南亚研究现状(2007~2017年)-基于国内主要国际关系期刊论文的分析”, 『战略决策研究』, 제5집, 2018, pp.74-101.

14) 赵静 외, “‘一带一路’背景下中国-东盟贸易畅通情况研究”, 『经济问题探索』, 제7집, 2017.

15) 宗会明 외, “‘一带一路’背景下中国与东南亚国家贸易格局分析”, 『经济地理』, 제8집, 2017.

16) 张晓燕 외, “‘一带一路’建设背景下的中国与东盟地区的贸易往来”, 『改革』, 제9집, 2017.

17) 李德军 외, “‘一带一路’战略构想对中国与东盟经贸合作的影响”, 『商场现代化』, 제24집, 2015.

18) 王艳 외, “‘一带一路’战略下中国-东盟经贸发展研究”, 『港口经济』, 제12집, 2016.

관계 발전을 분석하였다.

냉전시기 주로 갈등의 국면으로 흘러왔던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탈냉전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가까워지고 특히,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양측의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흔히, 최근 중국과 동남아의 가까워진 관계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구상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필요성에 의해 갑자기 진행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변화된 동남아의 대 중국 인식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양측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속도로 가까워진 소위 ‘황금10년’인 2003년부터 2013년의 기간 중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또한 무역과 투자부분의 시각에서 양측이 가진 밀접한 관계변화를 살펴본 후,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가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보고 ‘일대일로’ 제기를 통해 연계되는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세안이 중국을 우려와 기회라는 모순된 시각으로 바라보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는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중국이 내세우는 ‘일대일로’발전전략과 아세안 각국이 계획한 발전전략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보는 것은 향후, 한국이 동남아 진출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할 수 있고,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중국과 아세안 “황금10년”

2000년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합의한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과 아세안은 ‘황금10년’이라 불릴 만큼 양측 사이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모습을 보이며 서로 가까워졌다. ‘황금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금융 협력에서는 서로 더 친밀해졌으며 쌍방향 투자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협력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켰다. 중국과 아세안이 전방위 협력과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3년 10월 중국은 비동남아국가로서는 첫 번째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

입하였는데, 이는 인도·일본·러시아 등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협력에서의 아세안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향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정치·경제·사회·안보 및 지역과 국제사무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이고 깊고 안정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로써 중국은 아세안의 첫 번째 동반자 관계가 되었고 아세안 또한 중국이 첫 번째로 맺은 동반자 관계의 지역국제조직이 되었다.

2004년에 들어 양측은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해 ‘조기수확계획’을 실시함으로써 관세철폐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 FTA 상품무역 협상 체결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FTA 서비스무역 협상 체결, 2009년 8월 FTA 투자 협상 체결하였다. 2010년 1월부터 ‘중-아세안 FTA’가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아태지역과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2004년부터 매년 가을 중국 광시(广西)의 난닝(南宁)시에서 열리는 중-아세안 박람회와 중-아세안 비즈니스와 투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무역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투자협력·도시교류·산업연계를 추진하는 다분야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지도자들과 장관은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간에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돈독해지는 관계는 비단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2004년 인도네시아 해역의 강진으로 인해 발생한 해일 피해에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피해 국가들에게 구호를 위한 물자와 인력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2003년 사스라는 돌발 사태를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한 경험이 준 결과물이었다. 서로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중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또한 양측의 의사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97년 시작된 중-아세안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장관급회의도 신설했다. 이로써 양측은 외교·경제·교통·세관서장·검찰총장·위생·전기통신·신문·품질검사·글로벌범죄수사·문화·청년사무 등 12개의 장관급회의를 구축하였다. 이밖에도 중-아세안협력의 매커니즘 아래에는 고위관리협의·합동협력위원회 및 실무그룹회의·경제무역연합위원회·과학기술연합위원회와 비즈니스이사회, 그리고 중-아세안 센터와 중-아세안 박람회 등과 같은 협력 플랫폼¹⁹⁾이 양측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 채널의 확보를 토대로 이 시기 중국과 아세안은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영역을 선정하였다. 농업·정보산업·인적자원개발·상호투자·메콩강유역개발·교통·에너지·문화·관광·공공위생·환경보호 등 총11개 영역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농업·정보통신·비전통적안보·대메콩강서브지역·정보고속도로·교통·문화·위생과 식물위생·언론·지적재산권·과학기술법규·표준과 합격평가절차·아세안동부성장구역·중-아세안 센터 건립 등 12개 협력양해각서와 협력 플랫폼에 관한 사항에 서명했다

중국은 협력을 위한 자원의 조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 1997년 중-아세안협력기금 설립을 시작으로 2004년 중국 정부는 중-아세안 공공위생협력기금을 설립해 양측의 질병 퇴치와 건강 촉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0년 중-아세안투자협력기금의 설립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기초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자원 개발에 사용하였다. 다음해인 2011년에는 중-아세안해상협력기금을 설립해 중국과 아세안 관련 협력에 지출하고 있다.

2007년 아세안은 『아세안 헌장』을 통해 아세안이 유럽연합(EU)와 같이 긴밀한 국가연합의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따라서 아세안 각 회원국과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사파견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국은 아세안과 더욱 깊은 관계로의 발전 및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2012년 8월부터는 상주하는 아세안 사절단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이밖에도 2011년 11월부터 베이징을 본부로 두는 중-아세안 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해 양측의 무역·투자·관광·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은 계획의 준비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과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향한 공동 선언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2005~2010)》에 서명하면서 양측이 5년 내 정치안보, 경제와 사회문화 3대 분야에서 각 협력활동의 전개에 관한 내용, 목표, 자금과 메커니즘의 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후에 제2차 계획인 《행동계획(2011~2015)》년의 제정 또한 이루어졌고 2016년 3월 제3차 계획인 《행동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²⁰⁾

19) 徐步, “中国-东盟合作: 机制, 成果与前景”, 『亚太安全与海洋研究』, 제3집, 2017.

20) “落实中国—东盟面向和平与繁荣的战略伙伴关系联合宣言的行动计划(2016—202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최근 중국이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인프라 연결 사업도 2010년 아세안이 제안한 《아세안 연결 기본 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에서 추진동기가 나오리라 판단된다. 아세안의 제안은 중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중국은 이 같은 제안의 호응으로 2011년 ‘중-아세안해상협력기금’을 마련해 중국과 아세안의 해상에서의 상호연결에 투입하였다. 나아가 2012년에는 육상과 해상의 상호 연계 건설을 통해 고속도로·해운·항공·전기통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연계 협력 추진을 가속화하고 범아시아 철도 건설 등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중-아세안 연결협력위원회(China-ASEAN Committee on Connectivity Cooperation: CACCO)’를 발족시켰다. 여기서 중국은 ‘중-아세안투자협력기금’의 역할이 잘 발휘되어 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²¹⁾

지역경제 통합의 관점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서로 밀접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아세안 내부의 통합이었는데 2003년 아세안은 역내 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중요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과정은 동남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성립을 시작으로 아세안+1, +2, +6... 등의 방식으로 점점 협력의 범위를 넓혀갔는데 아세안은 늘 협력의 중심의 위치에 있었다. 이 같은 중심적 지위는 아세안 10개의 회원국의 단결과 응집력 강화, 그리고 중국의 지지로 다져졌다. 또한 최근 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도 역내 무역 확장의 어려움을 느낀 아세안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중국은 RCEP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중이다.²²⁾

이상과 같이 10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과 아세안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제기되는 ‘일대일로’의 제기와 자연스러운 추진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론 아세안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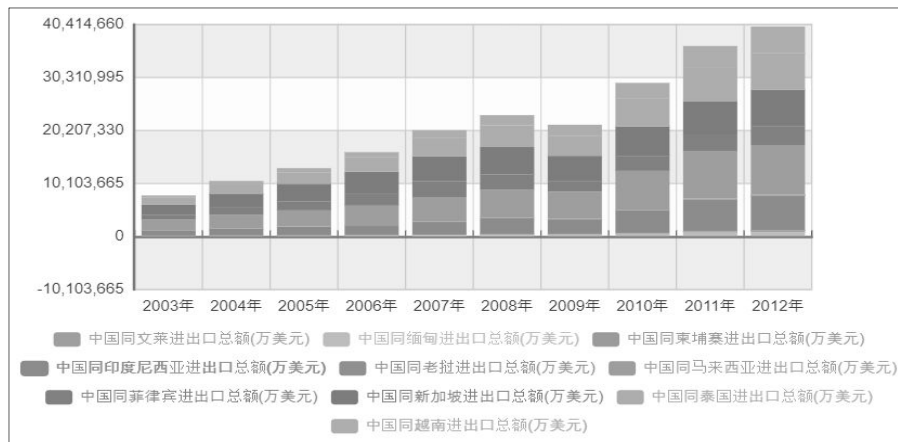
部, 2016-3-3,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tytj_674911/zcwj_674915/t1344899.shtml (검색일: 2019-12-02)

21) “中国-东盟互联互通合作委员会第一次会议在雅加达举行”, 商务部新闻办公室, 2012-11-7, <http://www.mofcom.gov.cn/aarticle/ae/ai/201211/20121108423917.html> (검색일: 2019-12-02)

22) “中 주도, 韓 참여하는 RCEP 맞춰 美 국무부가 낸 보고서”, 《중앙일보》, 2019-11-05.

인 팽창 문제 등으로 인한 대 중국 우려는 아세안 내부에서 늘 존재해왔다. 그러나 양측의 이익이 분명 서로 맞아떨어지는 영역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이익의 합치점에서 ‘황금 10년’의 명칭이 붙을 정도의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였을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친밀한 관계로의 발전은 양측의 무역과 투자의 측면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중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시작한 이래, 양측의 수출입 총액은 급속히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약 782.5억 달러에 달하던 2003년의 양측의 수출입 총액이 2012년도에는 약 4,011.4억 달러로 5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입 총액이 2003년 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했던 16% 수준에서 2012년 20%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측의 수출입 규모를 좀 더 살펴보면 2012년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규모와 동남아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각각 2003년 규모의 6.6배와 4.1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이후 외부수요환경이 감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세안은 오히려 서로 협력해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수출규모는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한층 더 오름세를 보였다. 2012년,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규모는 2008년의 1.8배,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규모는 2008년의 1.7배에 달하였다.²³⁾



출처: 중국国家统计局数据

그림 1.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수출입액 (2003~2012)

23) 중국国家统计局数据, <http://data.stats.gov.cn/> (검색일: 2019-12-02)

이와 동시에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무역상대국 지위와 중요도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2005년까지만 해도 아세안의 어느 국가 하나도 중국을 상위3대 수출목적지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12년 들어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있어 제일 큰 수출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수출무역상대국,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세 번째 큰 수출상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수출상대국4위의 지위에 올랐다. 이로써 중국은 많은 아세안 국가들의 외수(外需)성장 동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투자영역에서도 활발한 확대를 보였다.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이 《중국-아세안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래, 중국 기업의 대 아세안투자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2003년 중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의 규모는 2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2012년 61억 달러를 달성해 대 아세안투자의 규모가 중국의 총 대외투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1%에서 6.9%까지 상승했다. 2012년 말까지 중국 기업이 아세안 10개국에서 이뤄진 누적 투자는 282.4억 달러로, 투자총액의 5.3%, 아시아 지역 투자총액의 7.7%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투자자들이 아세안에서 설립한 각종 기업은 2600여 개에 달했고 현지 고용인도 11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 싱가포르 투자총액이 아세안10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4개 국가에 중국의 대 아세안 투자의 대부분이 집중되었다. 2012년의 투자총액 중 이 5개국에 투자된 금액은 230.3억 달러로 중국의 대 아세안 투자총액의 81.5%를 차지하였다. 싱가포르에 투자되었던 사업은 초기 해운, 무역, 공사도급 등의 전통영역에서 금융, 보험, 항공운송, 생물제약(生物制藥) 및 석유화학공업 등의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모두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로서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주로 에너지자원산업에 대한 투자로 중국석유(China National Petroleum), 중국석유화학집단유한공사(Sinopec Group), 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등 중국의 3대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1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중국의 투자는 농업, 원자재 등의 영역과 관련되어 이뤄졌었다. 태국의 경우는 중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해 산업영역에서 상호보완성과 경쟁성 모두 비교적 높아 상호투자에 있어 중복되는 분야가 비교적 넓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 태국 투자는 방직, 식품가공, 화학공업, 고무산업, 숙박 및 식음, 금융, 보험과

부동산 등 다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²⁴⁾

이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이 상호 접근을 통해 더욱 밀접한 관계를 향해 나아갔던 2003~2012년, 10년간의 성과와 협력 영역에서의 확대는 ‘일대일로’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에 있어 큰 초석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로 향하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추진에 있어 아세안 국가들의 대 중국협력에 있어 소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견지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Ⅲ. 중국의 “일대일로” 제기와 추진

1. 일대일로의 제기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 뒤이어 2014년 4월 양제츠(杨洁篪) 국무위원이 보아오 포럼에서 이 두 개념을 하나로 결합하여 언급한 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시작이었다. 2015년 3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추진계획’의 완성을 선언한 직후, 유관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외교부(外交部) 그리고 상무부(商务部)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하 《비전과 행동》)을 통해 틀이 갖춰지게 된다. 《비전과 행동》에 따르면, ‘정책의 소통(政策沟通)’, ‘인프라의 연결(设施联通)’, ‘무역의 원활한 교류(贸易畅通)’, ‘자금의 융통(资金融通)’, ‘민심의 상통(民心相通)’의 5대 중점사업을 기본 틀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연선국가들과 연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지나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²⁵⁾을 중심 뼈대로, 그리고 5개의 노선²⁶⁾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과 남·북극

24)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201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3, p.64.

25) ①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경제회랑(중국-중국서북지역-러시아-동유럽) ② 중국-몽고-러시아 경제회랑 ③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중국서북지역-페르시아 만-아라비아반도-지중해연안) ④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중국서남지역-인도차이나반도 각국) 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⑥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六大经济走廊”, 《中国一带一路网》, 2018-07-20, <https://www.yidaiyilu.go>

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잇는 프로젝트로 2016-2020년까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부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최소 10.6조 달러 이상²⁷⁾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 아세안 역내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 뒤 2014년 10월 24일, 중국을 포함한 21개의 국가가 AIIB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6년 1월부터 정식운용을 시작한 이래, 2019년 현재 93개국이 AIIB의 회원국이 되었고 15개 국가에게 총 79.4억 달러에 이르는 39가지의 투자 혹은 차관제공이 이루어졌다.²⁸⁾ AIIB의 자본금은 1,000억 달러로 1차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 중 중국이 이미 절반을 부담했고 총지분의 70~75%는 아시아 국가들이 25~30%는 비유럽국가들이 가지는 제안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중국이 먼저 거부권 포기를 제안하는 행보도 보였다.²⁹⁾ 뿐만 아니라, AIIB만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투자 자금을 모으는데 그중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실크로드 기금(丝路基金)’이다. 2014년 12월 정식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자금은 400억 달러와 1,000억 위안이다. 그 중 400억 달러는 중국이 보유한 외환과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中国投资有限责任公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이 각각 65%, 15%, 5%, 15%씩 출자해서 조성된 것이다.³⁰⁾

v.cn/zchj/rcjd/60644.htm (검색일: 2019-12-02)

26) 육상으로 통하는 실크로드 3개 노선(①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트해) ②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③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과 해상으로 연결되는 2개 노선(① 중국 연해항구-남중국해-인도양-유럽 ② 중국 연해항구-남중국해-남태평양)으로 구성된다.

27) “‘一带一路’基础设施建设投融资需求及推进”, 《中国经济时报-中国经济新闻网》, 2017-04-18, http://lib.cet.com.cn/paper/szb_con/488562.html (검색일: 2019-12-02)

28) “亚投行, 已批准15个国家的39个项目, 将开展联合融资”, 《央视网》, 2019-04-20.

29) 김홍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2016, pp. 29-30.

30) 丝路基金, <http://www.silkroadfund.com.cn/> (검색일: 2019-12-02)

2. '일대일로'의 추진과 고위급 포럼

1)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第一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2017년 5월, 전 세계의 관심이 중국으로 향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일대일로'의 구상을 제안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연선국가와 초청을 받은 국가 등을 포함해 총 29개국³¹⁾의 정상과 정부관계자가 참여했고 국제기구, 학자, 기업가, 언론매체, 금융기관 등 130여개 국가에서 1,500여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포럼은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첫날은 개막식과 각 실무진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책 소통 및 전략 협의', '인프라 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추진', '자금융통 촉진', '민심상통 증진', '싱크탱크 교류' 등 6개의 분야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29개국 정상 및 UN,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하는 원탁회의가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의 기조연설을 통해 '일대일로' 정책 추진이후 이룩한 4년간의 성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실크로드의 정신은 평화와 협력, 개방과 포용, 상호 학습, 상호 공영임을 밝히고 지난 4년간의 성과로 10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UN회의 및 UN 안보리 회의 등 중요한 결의에 '일대일로'의 내용이 상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간 정책 교류가 심화되었고 인프라 연계 강화,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확대, 민간 상호교류 강화 등 '5통(五通)'의 성과가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일대일로'를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개방의 길', '혁신의 길', '문명의 길'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사업의 목표로는 먼저, 관련 국가의 철도 부서들과 중-유럽 간 철도 협력 협의 체결을 강화, 실크로드 기금에 신규로 1,000억 위안 증자, 국가개발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각각 2,500억 위안과 1,300억 위안을 일대일로 건설 지원에 있어 특별 대출을 실행하고 포럼기간 동안 30여 국가와 무역협력협의 체결 및 관련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며 2018년부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 이내 연간 2,500명의 청년 과학자를 중국으로 초빙해 단기 과학연구업무에 참여, 연간 5,000명의 과학기술 및 관리 인원을

31)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칠레, 체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필리핀, 러시아, 스위스,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세르비아, 스페인,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양성하여 50개의 연합 실험실 운영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나아가 향후 3년간 ‘일대일로’ 건설 참여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에 600억 위안을 원조, ‘일대일로’ 연선의 개발도상국에겐 20억 위안의 긴급식량원조를 제공, 남남협력원조기금을 10억 달러 증자하고 연선 국가에 각각 100개씩의 행복한 가정(幸福家园) 및 빈곤구제(爱心助困)와 재활 의료를 지원(康复助医)할 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협력의 범위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이 협력의 대상임을 밝혔다.³²⁾

포럼기간 중 6개의 주제로 이뤄진 각 분야에서 회의는 ‘싱크탱크 교류(智库交流)’를 제외하고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추진’, ‘자금유통 촉진’, ‘민심상통 증진’의 5개 부문에서 76개의 큰 범주별로 270여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올렸다.³³⁾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소통 및 전략 협력’ 부문의 회의는 ‘정책 소통 및 발전전략 협력과 혁신 메커니즘 및 공동발전(政策沟通和发展战略对接创新机制、共谋发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이 회의를 통해 몽골, 파키스탄, 네팔,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동티모르,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정부 등 18개 정부와 ‘일대일로 협력 각서(“一带一路”合作谅解备忘录)’를 체결했고 UN개발계획(UNDP), UN공업개발기구(UNIDO), UN인간주거계획(UN-HABITAT), UN아동기금(UNICEF), UN인구기금(UNFPA), UN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의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둘째, ‘인프라 연결 가속화’ 부문의 회의에서는 ‘호연호통과 번영의 길로(互联互通 走向繁荣)’란 주제로 진행되어 16개 국가와 7개 국제기구 등 총 50여 개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다.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협력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바로 중국 정부는 태국 정부와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 협정(和平利用核能协定)’, 말레이시아 정부와는 ‘수자원 영역의 양해각서(水资源领域谅解备忘录)’를 체결하였다. 상무부의 경우는 캄보디아 공정운수부와 ‘기초

32) “干货来了!800字速览习近平”一带一路论坛主旨演讲”, 《人民日报客户端》, 2017-05-14, <http://www.c hinanews.com/jingwei/05-14/41008.shtml> (검색일: 2019-12-02)

33) ““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清单(全文)”, 《新华网》, 2017-05-16, http://www.xinhuanet.com/world/2017-05/16/c_1120976848.htm (검색일: 2019-12-02)

인프라 시설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关于加强基础设施领域合作的谅解备忘录)를 체결하였고 교통운수부는 캄보디아, 미얀마 유관기관과 ‘일대일로 교통운수 영역의 협력 문건(‘一带一路’交通运输领域合作文件)’을 체결했다. 국가해양국은 캄보디아 환경부와 ‘중-캄보디아 공동해양관측소 건설에 관한 협정서(关于建立中柬联合海洋观测站的议定书)’를 체결했다. 또 국가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중국고속철도유한공사와 ‘아완 고속철도 프로젝트 용자협약(雅万高铁项目融资协议)’를 체결했다. 그리고 라오스 유관기관과는 ‘항구, 전력, 공업단지 등의 영역의 기초인프라 용자협력 협의(港口、电力、工业园区等领域基础设施融资合作协议)’를 체결했다.

셋째, ‘원활화, 고효율, 공영, 발전, 심화의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畅通、高效、共赢、发展、深化 ‘一带一路’经贸合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무역 원활화 추진’ 부문의 회의에서는 30개 국가와 60여개 국가의 유관기관 등 총 90여 개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회의를 통해 미얀마 상무부와 ‘중-미얀마 변경협력지역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0)’를 체결했고 중국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유관기관과 ‘표준협력 강화 및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공동제약(关于加强标准合作, 助推“一带一路”建设联合倡议)’를 체결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라오스 재정부와 ‘공업단지, 송변전, 풍력, 댐, 위성, 유압기 등의 프로젝트에 관한 대출 협의(工业园、输变电、风电、水坝、卫星、液压器厂等项目贷款协议)’를 체결했고, 국가개발은행은 말레이시아 유관기관과 ‘화학공업, 야금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의 영역에서 생산협력 및 용자협력 협의(化工、冶金、石化等领域产能合作融资合作协议)’를 체결하였다.

넷째, ‘자금 융통 촉진’ 부문의 회의에서는 ‘다원화된 투·융자 체계 구축과 ‘일대일로’ 건설 촉진(建立多元化投融资体系, 促进‘一带一路’建设)’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 국가개발은행이 필리핀 수도 은행과 캄보디아 가화(加华)은행, 말레이시아 은행과 ‘융자, 채권인수 등의 영역에 대한 실무협력(融资、债券承销等领域务实合作)’을 전개하는 성과를 올렸고 수출신용보험회사는 라오스, 캄보디아 재정부와 ‘기본협력협의(框架合作协议)’를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민심 교량 공동 건설과 번영 발전 공동 촉진(共建民心之桥, 共促繁荣发展)’이란 주제로 열린 ‘민심 상통 증진’ 부문 회의에서는 30여 개 국가와 20여 개 국제금융기구 등 총 70여 개의 양자·다자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회의를 통해 중국의 교육부는 라오스 교육부서와 ‘교육영역 협력문건(教

育领域合作文件’을 체결했고, 국가관광국은 캄보디아 관광부와 ‘관광협력양해각서 실시방안(旅游合作备忘录实施方案)’을 체결했다. 또한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캄보디아 신문부, 브루나이 신문국과 ‘미디어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媒体交流合作谅解备忘录)’를 체결했고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와 브루나이 외교무역정책전략연구소와는 ‘싱크탱크 협력 촉진계획에 관한 양해각서(智库合作促进计划谅解备忘录)’를 체결했다.

이처럼 중국은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를 통해 그동안 ‘일대일로’ 제안부터 초기 추진단계까지의 점검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 확대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기회를 얻었다. 폐막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개최를 약속함으로써 ‘일대일로’는 본격적으로 명실상부한 소통 네트워크를 갖춘 거대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

2)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포럼의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2년 뒤 두 번째 ‘일대일로’ 포럼을 개최할 것³⁴⁾이란 약속은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개최되면서 이뤄졌다. 이번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은 2년 전 보다 참여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참여인원이 기존 29개국 정상에서 더 늘어난 37개국³⁵⁾의 정상이 참여했고 UN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 무려 2명의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하여 150여 개 국가 및 90개의 국제기구에서 5,0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다.³⁶⁾

올해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7년차에 접어들면서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 범위 확대 및 수준 강화와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지난 2013년 ‘일대일로’가 제안된 이래 중국의 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무역수출입총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

34) “习近平在“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上的闭幕辞(全文)”, 《新华网》, 2017-05-15,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7-05/15/c_1120976534.htm (검색일: 2019-12-02)

35) 인도네시아는 부통령이 참석, 아시아(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UAE,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럽(이탈리아, 세르비아, 포르투갈,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유럽 및 아시아(러시아), 아프리카(지부티,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기타(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36) “习近平将出席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并举行相关活动”, 《新华网》, 2019-04-19,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4/19/c_1124389167.htm (검색일: 2019-12-02)

선국가와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같은 시기 중국의 전체대외무역 증가율을 넘어섰다. 중국기업의 대 연선국가 직접투자액은 9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미 완성된 해외도급공정에 쓰인 돈은 4,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2019년 3월말까지 중국 정부가 체결한 협력문건은 125개국, 29개 국제기구에 이르며, 체결한 문건만도 173개에 달한다.³⁷⁾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은 지난 제1회 때와는 달리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확대가 일어났다. 기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던 ‘일대일로’ 관련 논의의 범위가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 확대에 따라 투자·무역 및 통관·물류 원활화와 자유화를 비롯해 자금 융통 지원, 혁신, 환경 및 표준 수준 제고 등의 분야로 넓어질 필요성 증가에 발 맞춰 ‘청림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지방협력’ 등 주제별 회의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6개나 늘어났다. 이는 ‘일대일로’가 추진 초기에는 도로망, 전력망, 공항 등의 물리적인 하드(Hard) 인프라 연결에 초점이 집중되었으나, 점점 정책, 법제도 및 표준 그리고 시스템 기반의 연계인 소프트(Soft) 인프라 연결의 중요도가 상승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함이다.³⁸⁾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企业家大会)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 포럼은 중국 무역 촉진회와 전국 비즈니스 연합회,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신설한 포럼으로 세계의 소통 및 교류, 협력 연계, 프로젝트의 계약 및 협력 심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4월 25일 개최된 현장에는 88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부처, 무역투자촉진 기구, 상회 및 협회, 기업 등 약 900명의 대표가 참석해 에너지, 금융, 농업, 인프라 등의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의 신경제형태 분야를 포괄하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실무적인 협력 논의와 프로젝트의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³⁹⁾ 참여한 중국의 기업과 각국의 기업들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4월 27일 37개국의 정상과 UN과 IMF의 수장이 모인 정상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37) “‘一带一路’，绘就世界和平发展的绚丽工笔画”，《光明日报》，2019-04-25，http://news.gmw.cn/2019-04/25/content_32776261.htm (검색일: 2019-12-02)

38) 하드 인프라(Hard Infrastructure)는 교통망, 항만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의미하고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는 문화, 교육, 정보 등의 제도적 인프라를 의미. 오윤미,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20, 2019, p.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9) “第二届‘一带一路’高峰论坛企业家大会25日举行”，『南方网』，2019-04-25，http://news.southcn.com/china/content/2019-04/25/content_186919497.htm (검색일: 2019-12-02)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아름다운 미래창조(共建“一帶一路” 开创美好未来)’를 주제로 인프라 연결, 정책연계, 녹색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등의 의제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관련자들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과 협력이 국가 및 지역들 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무역·투자·인프라 건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켰고 국제발전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회의가 끝난 후 함께 ‘일대일로’의 방향성을 담은 공동성명서(‘共建“一帶一路” 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帶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를 발표했다.⁴⁰⁾ 공동성명서에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과 오염 통제를 강조,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배격을 선언,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및 개방형 다자주의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은 지난 2년 전의 포럼보다 참여의 규모와 체결 계약의 규모가 훨씬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논의된 주제의 범위가 2배로 넓어진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불러왔다. 특히, 기존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주제를 친환경·녹색, 혁신, 디지털, 청렴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생산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에 집중한다는 등 중국의 성장 수단으로 연선국가들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의혹들을 떨쳐버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선국가들과 함께 건설해나가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IV.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세안의 연계 발전

1. 일대일로 제안과 동남아시아로의 추진 방향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함께 ‘일대일로’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다. 이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시작해 남중국해를 거쳐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통해 유럽·아프리카로 통하는 경로이다. 남중국해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는 바로 ‘해상실크로드’의 실현의

40) “第二届“一帶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全文)”, 『新华网』, 2019-04-27,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4/27/c_1124425237.htm (검색일: 2019-12-02)

중요한 연선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세안(ASEAN)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 거점인 동남아시아와 보다 긴밀한 외교 및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대일로’가 제기되기 전 중국과 아세안 간에 진행되던 경제협력들은 ‘일대일로’의 제안과 함께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모습을 보인다.⁴¹⁾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우선 거대한 중국 대륙과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하나로 잇는 연결망의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차원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국가급으로 체격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중국-중남(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일대일로’ 추진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 중인 ‘6대 경제회랑’ 건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5년 5월 27일 당시 부총리이던 장가오리(张高丽)가 충칭(重庆)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상호연결 산업 포럼(亚欧互联互通产业对话会)’의 축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⁴²⁾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를 제시한 이후,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와 외교부(外交部), 상무부(商务部)가 함께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계획(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 앞서 언급했던 6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经济走廊)’ 건설에 기초적인 도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은 중국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경제권과 중남반도의 주요 경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망 건설 사업이며, 연선국가들 간 물류, 자금,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확대를 통해 역내 지역별 비교우위의 상호보완, 분업구조의 재편, 지역 간 협력 개발 등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통로이다.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대상국가이며, 주요 노선은 중국 난닝(南宁)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Hanoi)-태국 방콕(Bangkok),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거쳐 싱가포르를 목적지에 두고 있다.⁴³⁾ 2016년 5월 26일, 제9회 범북부만 경제협력포럼(泛北部湾经济合作论坛)과 중-중남반도경제회랑 발전 포럼(中国—中南半岛经济走廊发展论坛)에서 발

41) 오윤아 외(2017), 상계논문, p.8.

42) “张高丽在亚欧互联互通产业对话会上的讲话(全文)”, 《新华网》, 2015-05-27,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05/27/c_1115429796.htm (검색일: 2019-12-02)

43) KIEP 북경사무소, “‘일대일로’ 경제회랑 건설 추진 동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8 No. 13, 2015, pp.8-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된 ‘중국-중남반도경제회랑 제안서(中国—中南半岛经济走廊倡议书)’⁴⁴⁾에 따르면, 먼저 소통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에 대한 공동인식을 통합하길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발휘중인 다자 및 양자 협력 기구의 역할을 기초로 공동으로 중-중남반도 경제회랑 개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발전전략 및 계획과 정책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경제회랑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상호연결 및 원활한 협력 채널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범아시아철도, 높은 수준의 고속도로, 해상운송, 항공노선, 정보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 통로를 건설하고 핵심프로젝트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았다. 또 기초 인프라 건설 계획과 기술표준체제의 교류연계를 강화해 원활하고 편리하며 고효율의 중-중남반도국제대회랑의 점진적인 형성을 기대했다.

세 번째로 원활화의 촉진으로 투자·무역에서의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양국일검(两国一检) 등의 세관 협력을 추진하고 검역·인증승인·표준계량 및 통계정보 등의 부문에서 양·다자간 협력을 통해 요소 자원의 질서 있는 흐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밀접한 인문교류를 통해 여론의 기초를 닦기를 제안했다. 중국과 중남반도의 국가는 서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혈연, 언어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일대일로’ 우호협력의 정신을 견지해 ‘난닝루트(南宁渠道)’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문화, 학술, 인재, 언론, 빈곤퇴치,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여론의 기반이 견실한 중-중남반도 국제경제협력 회랑을 조성하길 기대했다.

중-중남반도 경제회랑은 이 같은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중국 남부와 중남반도의 지역들은 점점 하나로 연결되어갔다.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共建“一带一路”合作备忘录)를 체결했고 양자협력계획 요강을 작성했다. 또 중-베트남은 육상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란창강-메콩강 수로 2기 정비공정의 전기 작업을 시작했다. 또 중국과 라오스 사이의 철도 건설을 착공했고⁴⁵⁾, 태국과의 노선도 착

44) “共建中国—中南半岛经济走廊倡议书”, 《中国发展网》, 2017-05-09, <http://special.chinadevelopment.com.cn/2017zt/ydyl/zck/2017/05/1139882.shtml> (검색일: 2019-12-09)

45) “连接中老两国的玉磨铁路友谊隧道开工建设”, 《人民网-云南频道》, 2016-06-22, <http://www.chinada>

공⁴⁶⁾하는 등 기초인프라 상호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2) 중-아세안 엑스포(CHINA-ASEAN Exposition: CAEXPO)와 란창강-메콩강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일대일로’와 아세안의 연계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협력들도 있지만 접경지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력들도 다수 존재한다. 중국의 동남아 정책의 목표들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 접경지역의 안정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전략의 형태는 지방정부가 동남아 협력의 주요관문이자 창구로 활동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대일로가 제기된 이후로는 기존의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흡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아세안 엑스포에 국가1급 박람회의 지위를 부여하며 중국과 아세안 경제협력의 핵심적 행사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아세안 엑스포는 2003년 10월 8일 원자바오가 제7차 중국-아세안(10+1)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2004년부터 중국의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의 난닝(南宁)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아세안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되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 같은 제안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환영을 받았다. 2004년 11월 6일, 첫 번째 엑스포를 시작으로 2019년 9월 21일 개최된 제16회까지 개최된 중-아세안 엑스포는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심 행사로 자리 잡았다. 제16회 엑스포에선 ‘일대일로 공동건설 및 협력의 비전을 함께 그리다(共建‘一带一路’, 共绘合作愿景)’는 주제로 개최되어 2848개의 기업이 참여, 총 7000개의 부스가 마련되었다. 이 중 아세안 및 역외 국가의 부스가 1774개, 아세안국가 부스가 7개나 되었고 회기 중 총 90회의 경제무역 촉진 활동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국가설명회, 아세안 산업단지 유치대회 및 제1회 중국-아세안 민영기업인 정상회의, 중국-아세안 민영기업인 리더살롱 등 민영기업인 관련 활동들이 개최되었다. 엑스포는 2020년 9월 18일 제17회 엑스포 개최를 약속하며 막을 내렸다.⁴⁷⁾

란창강-메콩강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LMC)은 중국과 메콩강 5개국이

ily.com.cn/interface/wifiKey/Chinafocus/2016-06/22/cd_25811188.html (검색일: 2019-12-02)

46) “泰国部长：泰中铁路明年开建 双方互惠双赢”，《新华网》，2016-12-18，http://www.xinhuanet.com/world/2016-12/18/c_129408934.htm (검색일: 2019-12-02)

47) “第16届中国—东盟博览会、中国—东盟商务与投资峰会取得丰硕成果”，《新华网》，2019-09-25，http://www.gx.xinhuanet.com/newscenter/2019-09/25/c_1125036418.htm (검색일: 2019-12-02)

공동으로 제창과 건설을 추진하는 신행 서브지역(Sub regional)협력 플랫폼으로, 6개국의 선린우호협력을 심화하고 서브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국가 발전 격차를 축소하여 아세안통합건설과 지역통합 프로세스에 힘을 보태고 남남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주요 협력분야는 지역간 연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 서브지역 경제특별구역 건설, 수자원 개발, 농업 개발 및 빈곤 감소이다. 2014년 11월 17일,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제안으로 설립이 이뤄졌으며, 2016년 3월, 중국 하이난성 썬야(三亚)에서 제1차 LM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 ‘최초의 LMC 정상회의 산아선언-평화와 번영을 향한 란창 메콩국가 운명공동체 조성(澜沧江-湄公河合作首次领导人会议三亚宣言—打造面向和平与繁荣的澜湄国家命运共同体)’을 선언함으로써 LMC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8년 발표된 ‘LMC 5개년 행동 계획(澜沧江-湄公河合作五年行动计划(2018~2022))’을 통해 기본원칙과 실무협력의 내용들을 명시해 구체적인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⁴⁸⁾ 사실 중국의 이 지역 협력은 LMC 설립 이전에도 있어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이뤄지던 광역메콩지역(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개발프로그램에 잠시 발을 담갔지만, 일본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과 이 지역에서의 원조활동이 빈곤을 해결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이 중국의 매력을 떨어뜨렸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건 인프라를 구축해 마치 거대한 내수 시장 같이 중국과 이 지역을 하나로 연결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것이기에 ‘일대일로’의 동남아 노선 개발에 발 맞춰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2. 아세안 국가들의 발전전략 연계와 의의

1) 아세안의 반응과 발전전략의 연계

아세안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였다. 시대에 따라 처한 환경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많은 연구들을 일 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주로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팽창은 상대적으로 힘이

48) 澜沧江-湄公河合作, <http://www.lmcchina.org/> (검색일: 2019-12-02)

약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동남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끼쳐 역내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의 입장인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의도(intention)에 주목해 상호의존을 통해 아세안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⁴⁹⁾ 아세안의 ‘위협’과 ‘기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일대일로’ 제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점들이 눈에 띈다.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스스로도 발전의 의지를 다져가는 아세안의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력과 외부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엔 충분했다. 이미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와 연계하기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베트남의 국가 주석 쩌 다이 쩡(Trần Đại Quang)이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 “오늘날 베트남과 중국은 ‘양랑일권(兩廊一圈)’ 계획과 ‘일대일로’ 건설이 효과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⁵⁰⁾ ‘양랑일권’ 계획은 2004년 5월, 베트남의 총리 판 반 카이(Phan Van Khai)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쿤밍(昆明)-라오까이(Lao cai)-하노이(Ha Noi)-하이퐁(Haiphong)’과 ‘난닝(南宁)-랑산성(Tinh Lang Sơn)-하노이(Ha Noi)하이퐁(Haiphong)’ 두 개의 경제회랑과 ‘환북부만경제권(环北部湾经济圈)’의 구상을 제안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의 윈난, 광시, 광둥, 하이난 등 4개의 성과 베트남의 라오까이, 랑산, 하노이, 하이퐁 등 5개 도시를 아우르는 86.9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이 권역에 속하는 인구만 1.84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이다. 이 협력의 최종 목표는 양국의 변경지역에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측의 기업 및 제3국의 기업이 무역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의 경제에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⁵¹⁾

2015년 12월 14일, 아리프 야야(Arief Yahya)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양일보가 주최한 ‘제2회 아세안 발전 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제기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인도네시아의 ‘세계해양중심 건설’계획의 목표는 상호 부합되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⁵²⁾ 인도네시아는 20세기 말부터 경제발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

49) 변창구(2011), 상계서, pp.210-213.

50) “推动“两廊一圈”与“一带一路”有效对接—访越南国家主席陈大光”, 《中国经济网》, 2017-05-11, http://m.ce.cn/yw/gd/201705/11/t20170511_22733756.shtml (검색일: 2012-12-03)

51) 刘稚, “经济全球化与区域一体化下的中越‘两廊一圈’合作”, 『当代亚太』, 제10집, 2006, pp.26-28.

52) “印尼旅游部长说‘打造世界海洋轴心’可以对接‘一带一路’战略”, 《新华网》, 2015-12-15, http://www.xinhuanet.com/travel/2015-12/15/c_128532352.htm (검색일: 2019-12-3)

리긴 했지만 성장의 중심이 육지에 편중되어 해양경제 발전 분야는 장기적으로 낙후되었다. 어업생산 관련 설비가 낡고 기술 수준이 낮았으며 조선업 및 항만·부두 인프라 등이 낙후되어서 섬과 섬 간의 연계가 부족하였다. 낡은 인프라에서 비롯된 높은 물류비용은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유발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등 해양국가 답지 않은 면모를 보였다. 이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인도네시아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제안과 함께 ‘글로벌 해양의 거점, 글로벌 문명의 허브’의 비전을 제시했다. 중국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가 해양에서의 중점 항구와 원활하고 안전하며 효율이 높은 운송대동로(运输大通道)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우선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 거점’ 전략은 서로 협력의 공간이 크다고 볼 수 있다.⁵³⁾

2018년 11월 1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인 분냥 보라쫓(Boungnang Vorachith)은 이날 신임 주라오스중국대사 쟡짜이동(姜再冬)에게 국서(国书)를 건네면서 “라오스는 라오스 발전에 중국의 귀중한 지원에 감사드리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중-라오스 철도 등의 중대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을 바라고 ‘일대일로’ 제안을 더욱 추진해 라오스의 ‘내륙국(land-locked nation)에서 육연국(land-linked nation)으로의 전환’ 전략과의 연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⁵⁴⁾ 라오스는 제8대 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신임 총리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이 제안한 ‘제8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과 ‘10년 사회경제발전 전략(2016~2025)’ 및 ‘비전2030’을 통과 시켰다. 또한 국가예산계획(2016~2020) 2015~2016년 국가 예산 조정 계획, 국회 5개년 발전 계획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계획도 승인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동서와 남북 방향의 통로를 건설해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상호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둘째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시앵쿠앙(Xieng Khouang), 사반나케트(Savannakhet) 등의 공항을 계속 건설하고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인프라 구축 맥락에서 떠오르는 전략이 라오스의 ‘육연국으로 전환’ 전략이다. 라오스는 내륙 국가로서 가지는 지리적 열세를 주변국과 연계된 망의 연결을 통해 내륙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전략적 목표를 세운 것이다.⁵⁵⁾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과 매

53) 金英姬, “中国与印尼发展战略的对接与经济合作”, 『太平洋学报』, 2016년 11월호, pp.31-34.

54) “老挝领导人本扬表示愿推动‘一带一路’倡议与老挝发展战略对接”, 《新华网》, 2018-11-01, http://www.xinhuanet.com/2018-11/01/c_1123649708.htm (검색일: 2019-12-03)

우 밀접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의 빠랏 찬 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2017년 11월 13일, ‘태국대전략동향’ 설명회에서 “태국정부는 20년(2017-2036)의 국가전략을 제정했고, ‘태국4.0’ 전략을 실시해 고부가가치와 혁신 드라이브 산업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태국대전략동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과 연계토록 하고, 특히 태국 동부경제회랑철도와 중-태국철도 협력 프로젝트의 연계 실현을 통해 태국 동부경제회랑을 아세안지역의 물류중추센터로 만드는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다.⁵⁶⁾ 태국은 2014년 빠랏 찬 오차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후, 정부체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2015년부터 태국국가장기발전전략인 ‘20년 국가 전략’의 제정을 시작했다. 2016년 12월에는 제12차 국가발전계획(2017-2021)이 정식으로 반포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 금융 위기 이래,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전통제조업을 바꾸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국4.0’ 전략을 제안했다. ‘태국4.0’은 빠랏 찬 오차 정부가 제시한 미래 20년의 경제사회전략 목표로서 농업 1.0시대와 값싼 노동력의 경공업 2.0시대, 외자유치의 중공업 3.0시대를 넘어 최종적으로 혁신 드라이브와 고부가경제의 ‘태국4.0’시대로 진입할 것이라 미래 비전을 담은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10대⁵⁷⁾ 목표 산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며, 동시에 방위에 따라 6개의 편구로 나뉜 전국구획 중 차춘사오(Cha chun sao)와 라용(Rayong)경제지역을 아우르는 동부경제회랑은 ‘태국4.0’전략의 중점발전구역으로써 여기에 최소 5년 내 430억 달러를 투입해 우타파오(U-tapao) 국제공항과 램차방(Laemchabang)항을 확장, 방콕-라용 고속철 부설 및 지역 철로의 복선화와 고속도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⁵⁸⁾ 중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은 물론 대규모 물류센터 설립과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동부경제회랑 프로젝트에 이미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계획 중이다.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Mohamad)은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55)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老挝(2017年版)”, 中国商务部, <http://www.fdi.gov.cn/CorpSvc/Temp/T3/Product.aspx?idInfo=10000545&idCorp=1800000121&iProject=25&record=629> (검색일: 2019-12-03)

56) “这两个国家,有望成为‘一带一路’在东南亚的支轴”, 《中国南海网》, 2017-11-24, <http://nanhai.haiwainet.cn/n/2017/1124/c3542184-31186338.html> (검색일: 2019-12-03)

57) 자동차제조업, 스마트 전자산업, 고급관광 및 보건 관광업, 농업과 생물기술, 식품가공업, 로봇제조업, 항공업, 바이오 연료와 생화학, 디지털 경제, 전방위 의료산업

58) 常翔, 张锡镇, “泰国东部经济走廊发展规划”, 『东南亚纵横』, 제4집, 2017, p.16.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는 연선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고, 말레이시아도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각 방면에 있어 상호연결과 전면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⁵⁹⁾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발전 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2016년 5월 21일, 당시 총리 겸 재무 장관이던 나집 툰 라작(Dato' Sri Mohammad Najib bin Tun Haji Abdul Razak)이 제11차 말레이시아 5개년 계획(2016-2020)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제확장을 지원하는 것을 6개 방책중 하나로 삼고 있다.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의 계획은 ‘Vision 2020’⁶⁰⁾의 최종 경제개발 청사진으로서 주요 사업의 예산 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⁶¹⁾ 최근까지 말레이시아 부동산의 경기가 하락세의 정체기였지만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고, 동부해안철도인 ECRL 프로젝트도 재개하는 한편, 싱가포르와의 합작 프로젝트인 HSR 프로젝트 재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동남아시아 교역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⁶²⁾ 또한 ‘Vision 2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일대일로’ 추진과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11월 19일, 미얀마의 틸조(htin kyaw) 대통령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는 국제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각국의 동반성장을 촉진했다”고 전하며 계속해서 ‘일대일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를 희망하고 중-미얀마 경제회랑 제의에 감사하며 중국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⁶³⁾ 미얀마 정부는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2010년 ‘국가전면발전20년 계획(2011~2031)’을 세우고 미얀마를 공업화된 현대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했다. 4개의 5개년 계획 단계를 가진 ‘20년 발전 계획’은 재정과 조세제도개혁, 금융개혁, 무역과 투자의 완화,

59) 鲁世巍, “共建“一带一路”为马来西亚发挥区位优势创造机遇”, 《中国一带一路网》, 2018-10-28, <https://www.yidaiyilu.gov.cn/ghsl/gnzjgd/69884.htm> (검색일: 2019-12-03)

60) 1990년부터 30년간 매년 7%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2020년에는 1990년 실질 GDP의 8배를 기록하여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말레이시아의 장기발전전략.

61)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pp.36-37.

62) “중국 자본 유입으로 상승곡선 탄 말레이시아”, 《한국금융신문》, 2019-10-04,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10042228249402dd55077bc2_18 (검색일: 2019-12-03)

63) “缅甸总统廷觉会见王毅”, 《人民网》, 2017-11-20, <http://world.people.com.cn/GB/n1/2017/1120/c1002-29657348.html> (검색일: 2019-12-03)

민영경제발전, 위생과 교육의 발전, 농업발전으로 식량공급 향상, 정부운영 투명화, 모바일과 인터넷 체계 발전, 기초인프라 건설 발전, 정부운영의 고효율화 등 10개 분야의 개혁을 우선으로 추진된다.⁶⁴⁾ 미얀마는 중국이 추진 중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⁶⁵⁾의 당사국으로 기초인프라 연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캄보디아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2019년 1월 20일, 캄보디아 총리 훈센(Hun Sen)는 리커창(李克强)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정식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양측은 ‘일대일로’ 제안과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의 연계를 가속화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⁶⁶⁾ ‘사각전략’은 캄보디아 정부가 2004년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을 수립한 이래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략을 말하며, 최근 2019~2023년에 해당하는 제4기 사각전략을 발표했다. 3기 사각전략에서 4기 사각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전략내용이 농업, 인프라, 민간 및 고용,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 인적자원개발, 경제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민간 및 고용, 지속적 포용적 발전으로 바뀌었지만 기본 4개의 원칙과 목표⁶⁷⁾는 유지되었다.⁶⁸⁾ 특히, 경제다변화의 전략의 내용에 속한 물류개선 및 교통-에너지-디지털의 연결 및 신 경제성장 동력 개발은 중국과 함께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7년 5월 5일, 중국을 방문한 필리핀 공보부 장관 마틴 안다나(Martin M. Andanar)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리핀도 기초인프라 건설에 있어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⁶⁹⁾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후, ‘국가비전 2040’을 제시했는데, 이는 2040년까지 중·고소득국 진입 및 국민의 건강한 삶, 그리고 빈곤 없는 중산층 사회와 신뢰사회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필리핀의

64) 张晓涛, 『中国与“一带一路”沿线国家经贸合作国别报告』, 北京: 经济科学出版社, 2017, p.80.

65) 투자무역, 공업, 농업, 교통, 에너지, 서비스 등 분야의 산업 협력 확대를 목표로 중국 윈난(云南)과 인도 서벵골(West Bengal)을 약 3,000km의 철도 및 도로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 KIEP 북경사무소 (2015), 상계 논문, p.6.

66)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柬埔寨王国政府联合新闻公报”, 《人民网》, 2019-01-24,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1/24/nw.D110000renmrb_20190124_2-03.htm (검색일: 2019-12-03)

67) 성장, 고용, 형평성, 효율성의 4가지 원칙과 기간 내 7% 경제성장 목표, 청년층의 질적·양적 고용 확보, 빈곤율 10%이하 감축 및 빈곤층으로의 회귀방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제도적 능력 및 거버넌스 강화의 4가지 목표.

68) 『캄보디아 개황』, 외교부, 2019, pp.66-67.

69) “菲律宾新闻部长: 菲愿与‘一带一路’倡议积极对接”, 《环球网》, 2017-05-09,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K2ASs> (검색일: 2019-12-04)

장기 발전 계획이다.⁷⁰⁾ 또한 실현을 위해 향후 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8%로 늘리고 농촌 빈곤율을 2022년까지 20%로 줄일 계획인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를 발표했다. 이는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중기개발계획이며, 농업과 제조를 주요 개발 분야로 간주하고 인프라 개선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국과 필리핀의 경제무역연합위원회 제28차 회의를 통해 양측이 ‘일대일로’와 ‘필리핀 국가비전2040’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합의했고, ‘중-필리핀 경제무역 협력 6년 개발계획(中菲经贸合作六年发展规划)’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등⁷¹⁾ 협력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행보를 보였다.

2017년 브루나이국왕 하지 하사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 역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현재 브루나이가 추진 중인 ‘국가비전 2035(Wawasan 2035)’에 중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농업, 어업, 에너지, 기초산업건설,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실무적인 협력을 희망하였다.⁷²⁾ 브루나이가 추진 중인 ‘국가 비전 2035’는 2007년 브루나이 정부가 제시한 국가장기발전계획으로 2035년까지 1인당 GDP 및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실현을 위한 조치로는 8개 핵심 분야⁷³⁾의 중기 전략 정책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5년간 95억 브루나이 달러를 투입하여 연 6%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⁷⁴⁾ 브루나이는 중국과 육지를 통해 직접 연결될 수 없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상실크로드 건설의 중요한 항만, 해상항로 확보 및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다. 2017년 6월 12일 중국을 방문한 싱가포르의 외교부장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대일로’ 제안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초창기

70) 『AmBisyon Natin 2040』,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6, <http://2040.neda.gov.ph/about-ambisyon-natin-2040/> (검색일: 2019-12-04)

71) “六大成果拓展中菲经贸合作空间”, 《中国经济网》, 2017-03-08, http://expo.ce.cn/gd/201703/08/t20170308_20808188.shtml (검색일: 2019-12-04)

72) “习近平同文莱苏丹举行会谈 两国元首共同规划两国未来合作 推动中文关系在新时期取得更大发展”, 《央视网》, 2017-09-13, http://news.cnr.cn/native/gd/20170913/t20170913_523948055.shtml (검색일: 2019-12-04)

73) 교육, 경제, 안보, 제도발전, 지역 중소기업 개발, 기반시설 개발, 사회보장, 환경 분야.

74) 『브루나이 개황』, 외교부, 2019, pp.51-52.

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가 아시아 각국이 시급한 기초인프라 건설과 상호연계 지원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결과적으로 세계인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인데, 싱가포르의 ‘일대일로’ 건설 연선의 중요한 위치에서 금융 중심의 지위를 통해 ‘일대일로’가 필요한 용자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⁷⁵⁾ 중국과 싱가포르는 무역과 투자 방면에 있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고 중국 1위의 투자처가 싱가포르이다. 2017년 말까지 싱가포르가 중국에게 투자한 누적 액은 900억 달러가 넘고, 중국 또한 싱가포르에 투자한 누적 액이 366억 달러에 달한다. 양측 간의 2017년 무역교역액은 792억 달러를 기록해 2016년 대비 12.4%의 성장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상호연결 방면에서도 협력도 이뤄지는데, 현재 전개되는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는 3개로 중-싱가포르 쑤저우(苏州)공업단지, 텐진(天津)생태타운과 충칭 전략성 상호연결 시범사업이다. 금융방면에서의 협력은 2014년 양국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인민폐와 싱가포르 달러의 직거래가 시작되었고 2016년 양국 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도 했다. 또한 양측사이의 금융협력이 민간의 영역으로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⁷⁶⁾

2) ‘일대일로’와 발전전략 연계의 의의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은 경제적인 밀착행보를 보여 왔다.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성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을 바라보는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이다.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이뤄지던 협력의 수준들과 자신들의 내세운 발전 정책들이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이 던진 미래의 청사진은 방향하던 행보에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잣대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상호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 방향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거쳐 온 중국의 입장에

75) “新加坡表示全力支持和参与‘一带一路’建设”,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7-06-12, https://www.fmprc.gov.cn/web/wjbx_673089/xghd_673097/t1469555.shtml (검색일: 2019-12-04)

76) “中国与新加坡力拓‘一带一路’合作新空间”, 《新华网》, 2018-11-11, http://www.xinhuanet.com/world/2018-11/11/c_1123696275.htm (검색일: 2019-12-04)

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줄어드는 해외 수요에 동반 하락하는 성장률을 막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충분한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해외 수요의 축소는 ‘일대일로’ 건설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세상에 선보이게 했고⁷⁷⁾ ‘일대일로’ 탄생 전에 쌓아뒀던 동남아와의 밀접해진 경제협력 관계는 상호의존가 깊어지는 동남아지역에서의 ‘일대일로’ 건설에 상당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일대일로’가 처음 제안됐을 때 주변 국가들의 많은 의심과 우려를 샀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위협’을 기조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배경에 대해 살폈다.⁷⁸⁾

중국의 ‘일대일로’ 제기가 아세안 국가들과 연계되는 것이 어떤 배경과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세안 국가들의 대 ‘일대일로’에 관한 인식이다. 앞서 서술한 내용처럼, 이미 아세안의 모든 국가들은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건설이 본인들이 추진 중인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되기를 희망했다. 물론 중간과정에 추진 중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잠시 중단되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중국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아세안에 활력이 불어넣어진 것도 사실이다.⁷⁹⁾ 동남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시에 중국과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중국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풍부한 자원과 충분한 인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인프라 환경은 늘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 지나간 이데올로기의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경제력이 증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세안 각국들도 이런 시대의 큰 배경에 발맞춰 경제력 확충을 국가발전전에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 아세안 국가들이 꺼내들었던 각국의 중·장기발전전략들은 대부분이 아세안을 경제적으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계획들이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금과 기술의 부족으로 계획이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 각국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프라의 구축은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먼저 망을 구축하고 구축된 망을 통해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가 이뤄진다면 ‘길을 따

77)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시선집중GS&J』, 제195호, 2015, p.8.

78)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정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5집 1호, 2017 참조.

79) “중국 자본 유입으로 상승곡선 탄 말레이시아”, 《한국금융신문》, 2019-10-04,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10042228249402dd55077bc2_18 (검색일: 2019-12-04)

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일대일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운명공동체'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으로, 한쪽의 요구가 상대방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협력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 협력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이익에 있어 합치점이 존재한다는 정상들의 발언을 통해 본다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일대일로' 건설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미래가 불안정해질 때는 늘 고민에 빠지게 된다. 미래에 다가올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헤쳐 나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주변과 연계해서 함께 대비해 나가는 방안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2003년을 기점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기반을 토대로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해나가는 두 번째 단계의 밀착행보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처해나가는 암묵적인 합의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V. 결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건설을 제안한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초창기 '일대일로'의 실체가 다소 모호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구체화된 계획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프로젝트들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안한 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존재하겠지만, 이것이 무(無)에서 유(有)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대일로' 제안이 있기 전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국내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동북진흥계획'을 비롯한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의 정책을 구역별로 추진하고 있었다. 즉, '일대일로'는 갑자기 이뤄진 연계가 아니라 과거부터 주변국 과들과 꾸준히 진행되어온 교류와 구역별로 나뉘어졌던 성장계획들을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으로 엮은 것이다. 과거 '황금10년'으로 부르는 중국과 아세안의 밀접해진 경제교류 토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면 '해상실크로드'의 연선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경제영역에 있어 중국과 급속도로 밀접해지는 추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향한 의심과 우려를 밑바닥에 깔고 견제의 태도를 보인

적도 있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구애와 화합의 손길을 내민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일대일로’ 건설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광범위한 대상과 광범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기에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전체의 방향을 일반화하는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1회 포럼에 비해서 규모가 확대된 것만 봐도 ‘일대일로’의 건설이 현재 가지는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발전전략, 발전계획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미래를 함께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꿈’에 자신들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 참여를 원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도 과거 밀접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꿈을 엿봤을 것이고 그 값진 경험의 시간을 토대로 새로운 1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과 의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아세안 각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발전계획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계획들이 ‘일대일로’ 건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세안 각국이 가진 발전전략들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진행되는 ‘일대일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면 향후 ‘일대일로’의 방향성 혹은 유지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또한 최근 한국정부가 동남아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도 과거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이루어지던 협력의 요소들을 잘 찾아내 큰 틀로 엮을 수 있다면 ‘일대일로’에 규모면에선 비교가 되지 않더라도 질적인 면에선 충분히 상응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발전 동력요소와 선택요소

방 성 운*

• 목 차 •

I. 서론	IV.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정치발전 요소와 특징
II. 정치발전과 중국의 정치발전	V. 결론
III.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	

I. 서론

2018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었다. 개혁개방이후 40년간 중국은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냈고, 세계 제2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그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각 학계에서는 중국 40년 발전의 성과와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중국의 미래상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눈부신 중국의 경제발전은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 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는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에 반해 중국의 정치발전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정치 역시 발전, 개혁을 거듭 해왔으나 경제적 발전의 성과에 비해 급진적인 변화가 없어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정치발전의 개념으로 중국의 정치 발전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 중국 성립이후 대약진(大跃进)운동, 문화대혁명, 천안문사건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견디고, 시장경제 체제 도입이 중국내 정치적 민주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

* 강원관광대학교

있으나 중국은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 아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정치발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의 중국 공산당 중국발전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에 따르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자신의 길’을 강조하고, 중국 공산당이 견지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국정(国情)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4개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생산력의 발전과 해방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선진문화, 사회주의 화해사회, 사회주의 생태문명을 건설하여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통한 인민전체의 부유와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경제 위주의 발전전략에서 발생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발전, 정치발전, 생태문명 발전, 부의 재분배 등의 문제로 시각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발전은 중국사회에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중국공산당은 발전과정에서 제도건설, 서비스형 정부 건설, 책임정부 건설, 법치정부 건설, 화해사회 건설, 국방 건설, 생태 건설 등 ‘건설(建设)’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건설(建设)’ 과정이 곧 중국정치 발전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중국몽(中国梦)을 최종 목표로 하는 신시대(新时代)는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글은 개혁개방 40년이래 중국의 정치발전과정을 지도자별로 살펴보고 발전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요소를 분석하고 정치발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중국정치발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정치발전과 중국의 정치발전

정치발전의 개념에 대한 이론이 대부분 1950~60년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정치발전은 곧 서구화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서방 정치학의 정치발전이론은 중국의 정치발전 개념과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학자들의 정치발전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발전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연구자가 바라보는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발전 연구는 단편적인 부분을 놓고 연구하기 보다는 종합성을 따져 연구하여야 한다. 이엔지룽(燕继荣)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하나의 단일적 과정 또는 조직적 과정으로 여겨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일수도 있고, 또한 정치발전을 ‘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설정해 놓은 목표로의 이행을 연구하는 것일수도 있다 하였다.¹⁾ 이는 서방의 비교정치이론의 엄밀하게 규정된 정치발전모델로 중국의 정치발전을 규정하기에는 어렵고, 정치발전 목표의 다원성, 정치발전의 단계성, 정치발전 실현 방식의 다양성을 염두해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발전모델’이 완벽히 구성된 것이 아니며, 정부의 어떠한 발표와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식 ‘정치발전 모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연구는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정치체제 개혁’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으며, 이 역시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발전이 정치적 자원이나 수단, 절차등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조직되는 과정으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과정이나 정치체제의 능력의 강화라는 대의를 인정한다.

1. 정치발전의 일반개념

서방의 정치발전에 대한 정의 역시 많은 의견이 존재하나 그 중 대표적인 의견으로:

첫째,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에 따르면 정치발전을 근대화와 구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제도란 발전 할 수도 있고 성숙될 수도 있는 반면에 쇠퇴하고 패망할 경우도 있다. 한 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치체제가 지닌 정치구조의 안정도와 그 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대화의 사회적 과정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²⁾ 정치발전은 정치 제도화에 초점을 두면서, 특히 정치 참여 및 동원화의 과정과 정치 제도화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둘째,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 Almond)에 따르면 정치 발전이란 정치 체제가 구조적인 분화와 문화적인 세속화를 통해 체제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정치 체제 및 정책의 변화로 구조의 세분화, 문화적인 세속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 하였다.³⁾

셋째, 파이에 따르면 정치발전 과정의 핵심은 평등, 능력, 분화의 세가지 요소라 하였다. 평등은 대중에게 정치활동의 보편적 참여와 개입을 요구한다.⁴⁾ 정치참여는 시민권을

1) 燕继荣 主编, 『发展政治学』 第二版,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년, p.1.

2) 김창희, 『비교정치론』, (서울, 삼우사, 2005년), p.217.

3) 白钢 主编, 『“政策主导型”的渐进式改革』(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1년), p.2.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법 적용과 업적 본위의 충원을 통하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평등이념은 정치체계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무한한 잠재적 인간 동력을 개발, 활용하게 하며 시민의식의 고양을 통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발전시키며 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⁵⁾ 능력은 공공정책 집행 과정의 효력과 능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체계가 제도적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이다. 정치나 행정의 침투력이 미치는 범위나 심도는 정치체계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관건이 되고 정부의 기능 수행의 범위와, 능력은 행정의 합리성과 정책의 세속적 정책지향과 관련된다.⁶⁾ 분화(전문화)는 정치체계 중의 각종 정치구조들이 안정된 역할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워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다. 분업과 같은 구조의 분화와 기능의 전문화, 복잡화된 구조와 과정의 통합을 의미한다.⁷⁾

서방의 정치발전 이론은 서구적 발전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이 서구적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나 이론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또한 정치적 상황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정치현상이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⁸⁾

2. 중국의 정치발전 개념

중국 정치학자들 간에 ‘정치발전’ 문제가 학문적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정치체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던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⁹⁾ 중국정치학자들은 서방정치 발전 이론을 참고하면서 중국의 국정(国情)에 적용하려 하였다. 중국 정치학자들은 서방의 정치발전 이론이 19세기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중국의 발전과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중국에 적용 가능한 정치발전 이론을 제시하였다.

중국 학자의 정치발전에 대한 정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4) 위의 책, 2쪽.

5) 김창희, 앞의 책, p.222.

6) 위의 책, 223쪽.

7) 白钢 主编, 앞의 책, p.2.

8) 김창희, 앞의 책, p.224.

9) 이계희, “중국학자들의 중국정치발전론”, 『사회과학 연구』, 제12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151.

10) 白钢 主编, 앞의 책, pp.4-6.

첫째, 마르크스주의 정치발전관을 기반으로 정치발전의 일반성과 내재된 규율을 강조한다. 왕후닝(王沪宁)은 정치발전은 각 국가와 사회가 역사 발전의 시기마다 직면하는 중대한 책임이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정치발전은 사회발전의 추진과정과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하였다. 정치발전의 내재된 규율이란: i 경제발전이 정치발전을 결정. ii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 제공. iii 정치발전의 핵심은 국가권력. iv 계급투쟁이 정치발전을 추진이라 규정한다. 정치발전은 자발적인 정치활동이고 동일성과 다양성, 보편성과 특수성, 필연성과 우연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둘째, 정치발전은 정치관계의 변혁과 조정을 의미한다. 왕후이옌(王会岩)은 정치관계와 정치구조의 조정과 변혁이 정치발전이라 주장한다. 정치발전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마르크스주의 정치발전관에 따르면, 정치발전은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로 이동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며, 정치발전의 동력은 사회적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력이고, 경제변혁을 기초로 하는 복합적 구조체계라 하였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신·구 교체는 정치발전의 지표이고 정치체제의 개혁은 정치발전의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다. 왕푸취(王浦劬)는 생산력과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특정 경제관계와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익관계의 갈등과 발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정치권력과 정치권리의 변혁과 조정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정치발전이라 설명한다. 정치관계의 외연적 형태와 표현방식의 발전 역시 정치발전을 의미한다. 정치행위의 성질, 주체, 방향의 변혁과 조정을 포함하여 정치체제의 성질, 기본구조, 운영방식과 정치문화 성향, 관념, 태도, 의식, 사상의 변혁과조정 등이 정치발전이다. 리징즈(李景治)과 시용광칭(熊光清)은 정치발전은 정치관념의 변화, 정치구조의 합리성, 정치제도의 보완, 정치행위의 진보 과정을 정치발전이라 하였고, 천홍위(陈鸿瑜)는 정치발전의 개념이란 정치시스템이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구조의 분화와 조직의 제도화를 점차 이루어 가는 것이라 한다. 인민의 동원참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정치시스템의 집행능력이 강화되고, 전환기의 위기를 넘기는 과정이 정치발전이라 말한다.

셋째, 정치발전은 광의와 협의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천전밍(陈振明)은 광의의 의미로 정치발전은 인류정치 진화의 과정과 상황이라 하였다. 이는 정치형태의 비약적 발전과 정치체계가 합리적 방향으로의 변화, 조정됨을 의미한다. 정치발전은 인류의 정치생활이 아래에서 위로, 간단함에서 복잡함으로 진보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인류사회 전체가 진보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한다. 협의의 의미로 정치발전은 농업문명 기초의 전통의

정치체계가 산업화문명 기초의 현대정치 체계로 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왕방주어(王邦佐)는 광의의 정치발전은 노예제도국가에서 봉건국가,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이행되는 것과 같이 정치체계가 더 높은 형태로의 이행이라 하였다. 협의의 정치발전은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변화라 하였다.¹¹⁾

정치발전의 일반개념에서 정치발전은 민주화가 끊임없이 실현되는 역사로 볼 수도 있고, 정부가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사로도 볼 수 있다. 정부의 혁신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체제 내에 끊임없이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능력이 줄곧 존재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¹²⁾ 중국의 정치발전의 개념은 정부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정부체제의 혁신,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현대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Ⅲ.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

1. 개혁개방 이후 정치발전 과정

1949년 마오쩌둥(毛泽东)의 영도아래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국가적 상황아래 점차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와 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과 탐색 과정에서 중국은 경험 부족과 마오쩌둥 개인의 주관적인 정치 노선으로 인한 ‘좌경의 오류’를 범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에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을 중국 지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78~1989년 덩샤오핑(邓小平), 초기 탐색 시기¹³⁾

이 시기에 중국정치발전의 주요 내용은:

11) 白钢 主编, 앞의 책, pp.4-6.

12) 엔지룽, 중국 40년 “개혁의 정치발전”, 『성균차이나브리프』, Vol. 6, Issue 4, 2019.

13) 陶林, 孙汉侣, “改革开放四十年与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发展道路-基于历程, 成就, 基本经验三个维度”, 『山东农业工程学院学报』, 第36卷, 第5期, 河南大学公共管理学院, 2019년 p.103.

첫째, 사상노선의 안정을 취하고 바로잡는 것이었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고 사인방의 해체가 이루어 졌으나, 마오쩌둥의 범시(凡是)가 여전히 사람들의 사상을 막고 있었다. 이에 덩샤오핑은 사상해방을 중점으로 한 실사구시(事实其实)이론을 당의 사상노선으로 정한다. 1978년 11기 3중회의에서 계급투쟁을 버리고 경제건설을 중심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의 새 역사를 발표한다.

둘째,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끌었다. 1982년 신규정을 통해 4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경제건설 중심의 원칙을 확립하였고,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위와 직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무원 총리 책임제와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수장 책임제를 도입하였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의법치국’을 실현하게 되었다. 14)

셋째, 정치체제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을 역사를 교훈으로 1980년 <당과 국가영도체제 개혁>을 발표하고 기존 중국정치체제의 폐단, 근원, 개혁의 기본 원칙 등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였다. 덩샤오핑은 일원화된 영도체제를 관료주의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체제와 영도간부의 직무의 종신제를 비판하고, 개혁의 원칙을 경제발전에 이익이 되는 생산력으로 삼았고, 우선 당정 분리, 권력의 하방(下放) 중앙과 지방관계, 조직의 간소화를 정치체제개혁의 주 내용으로 삼았다.

넷째, 1987년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이론과 당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였다. ‘하나의 중심, 두개의 기본점(一个中心两个基本点)’을 견지하면서 삼보주(三步走)전략을 택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2) 1989~2002년 장쩌민(江泽民), 안정된 의법치국의 수호시기¹⁵⁾

이 시기 중국정치발전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외의 가혹한 정세에 대응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1989년 천안문사건의 정치적 풍파와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변화, 중·미 관계 악화는 중국이 발전노선을 채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시기였다. 중국은 4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자 산계급의 자유화를 막음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도광양회’의 외교방침을 세워 중국내부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14) 위의 책 p.104.

15) 위의 책, p.104.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정치체제의 개혁을 실행하였다. 1993년 제8기 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통해 국무원 조직개편을 이루었고,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의 이론을 확립하여 민주와 법제, 법률보호를 보장하였다.¹⁶⁾

셋째,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泽民)주석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발전,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삼개대표론’을 발표하여 사회 주요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지식인을 포용하여 공산당의 권력기반을 확장하였다.

3) 2002~2012년 후진타오(胡锦涛), 과학발전관을 중점으로 한 화해사회(和谐社会) 건설 시기

이 시기 중국정치발전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학발전관의 제기.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胡锦涛)주석을 핵심으로 새로운 중앙영도체제를 확립하였다. 2003년 사스 사태는 중국 공공행정의 집행능력과 공산당의 통치 능력에 대한 심판의 시기이기도 하였으나, 인민에게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였다. 2003년 처음으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경제, 사회,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과학관이라는 이론의 과학발전관이 제기되었다. 과학발전관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심은 인민이 주인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벗어나지 않고, 당의 영도아래 인민이 주인이 되어 법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의 유지적 통합이라 하였다.¹⁷⁾

둘째, 과학발전관에 근거한 제도개혁. 중국정부는 2005년 <정부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민의 알권리, 참가권, 표현권,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인민의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제약·협약에 관한 논의와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례에 의한 인민대표 선출에 관한 논의, 기층민중의 자치제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통해 국무원 산하의 정부부처 개혁을 통해 부처간 업무 중첩을 제거하고, 협력 강화를 이루어 냈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 노선은 정치체제 개혁을 통한 것이라 명시하

16) 위의 책, p.105.

17) 위의 책, p.105.

였다. 인민대표 대회를 통해 인민은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사회주의 협상민주제도를 인민민주를 실현시키며, 행정체제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셋째, 사회주의 화해사회 건설.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순서였다. 조화사회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환경건설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사회라 하였다. 민주정치, 공평정의, 성실우애, 총만활력, 안정질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6가지를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목표라 강조했다. 조화사회 건설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 인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였다.¹⁸⁾

4) 2012~현재 시진핑(习近平),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신시대(新时代)’ 돌입.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중국은 시진핑(习近平)주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앙영도 집체를 확립하였다. 시진핑의 영도아래 중국은 중화민족 대 부흥의 중국몽(中国梦) 실현을 위한 새시대에 접어 들었다. 새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와 민생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개혁의 성패는 비전과 함께 이를 실행할 조직을 구비하는 제도화에 달려있다.

이 시기 정치발전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전면심화개혁의 강조이다. 2013년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전면심화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면심화개혁을 제시하였고, 전면심화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라고 하였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시장에 대한 합리적 자원배치를 강조하였고, 정부직능의 전환, 재정세무 체제개혁, 사회주의 법치 중국 건설 추진, 사회주의 생태문명 체제개혁, 사회주의 문화강국 심화 문화체제 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추진이다. 제18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가속’을 제안하였고, ‘의법치국의 전면추진’을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중요목표와 중요 임무로 삼았다. 법치주의 중국건설은 법치국가, 법치사회, 법치정부 체제의 추진을 포

18) 위의 책, p.106.

함하는 것으로 과학입법(科学立法), 엄격집법(严格执法), 공정집법(公正执法), 공민수법(公民守法)을 주요 방침으로 정했다. 인민이 전면입법치국의 주체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함과 입법치국이 덕치국가라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 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 추진. 국가기구와 행정체제의 개혁은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 내용임과 동시에 필연적인 요구이다. 2018년 19기 삼중전회에서 ‘당과 국가기구개혁의 중대결의’에서 행정체제 개혁의 새시대를 열었다. 이 결의에 따르면 당과 국가기구개혁 심화는 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의 추진을 위한 주요한 변혁임을 강조한다. 이는 정부의 간소화와 권력하방, 정부직능 전환, 법치 중국 건설, 권력 제약 및 관리감독 강화, 국방과 군대 개혁심화를 세계일류의 무장역량 체계, 당의 영도 강화를 포함한다.

개혁개방 40년이래 중국은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정치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개혁개방 당시 덩샤오핑은 ‘한 국가에서 가능한 어떤 일들이, 기타 다른 국가에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고, 자신의 특점에 맞는 자신의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하였다.¹⁹⁾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개발도상국국가로서 정치발전의 방향과 방법은 서방국가의 모델을 따라 할 수는 없으나, 서방국가들의 경험을 받아 들일 수는 있다.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부터 세계화의 영향, 대중의 요구, 정부의 직능과 정부체제의 개선, 사회수요에 대한 변화와 해결방안의 제시 등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능력의 현대화를 통해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다.

IV.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정치발전 요소와 특징

1. 중국의 정치발전 요소

개혁개방 40년이래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국가상황에 맞는 정치발전 동력과 방법, 절차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치발전은 단일적, 단편적인 영향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 발전이다. 파이(Lucian

19) 邓小平, 『邓小平文选』, (北京, 人民出版社, 1993年), p.373.

W. Pye)는 정치발전을 10개 항목으로 종합하고 있다.²⁰⁾

- ①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의 정치적 필수조건
- ② 정치발전은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정치형태
- ③ 정치발전은 정치적 근대화
- ④ 국민국가의 형성 및 작용
- ⑤ 행정적 법률적 발전
- ⑥ 대중의 동원과 참여
- ⑦ 민주주의 제도의 건설
- ⑧ 안정과 질서 있는 변화
- ⑨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동원과 권력)
- ⑩ 다원적인 사회로 변화과정의 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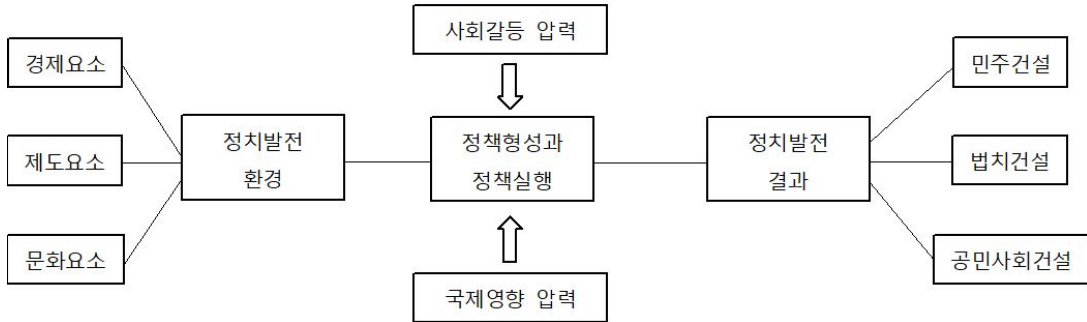
파이의 정치발전 정의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1개로 종합해 볼 수 있다.²¹⁾

- ① 경제요소: 경제발전과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경제건설(시장경제,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발전 모델, 수입과 분배의 문제.
- ② 제도요소: 제도는 국가정권과 상관관계(국가정합(整合), 국가건설, 민족건설, 정치권위의 합리화), 정치체제의 개혁(정치체제의 능력강화) 등의 문제.
- ③ 민주요소: 정치민주화, 민주제도 건설, 민주정치 발전의 문제.
- ④ 법치요소: 의법치국, 헌정체제건설과 법률 및 사법제도의 완성의 문제.
- ⑤ 문화요소: 정치문화의 추세, 관념, 태도, 인식, 이론 규범 등의 문제.
- ⑥ 사회요소: 다원화, 사회조직의 발전, 평등과 자유, 권리보장, 사회동원과 정치참여 문제.
- ⑦ 갈등요소: 사회갈등 문제는 정치위기, 정치안정, 정치질서 등 문제.
- ⑧ 국제요소: 세계화, 국제정치, 국제관계, 국제개입, 전쟁 및 평화문제.
- ⑨ 정당요소: 중국 정치발전에 있어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 역할, 중국의 '당국체제'
- ⑩ 정책요소: 정책의 변화와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효력과 효율의 문제.
- ⑪ 발전방식요소: 급진적, 점진적, 혁명, 개혁, 개량 등의 노선과 전략의 문제

20) 김창희, 비교정치론, 삼우사, 2005년 8월 221쪽.

21) 史卫民 张小兵著, 『中国政治发展模式的选择』,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3년), pp.6-7.

중국정치발전의 이론에 따라 요소들을 인과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²²⁾



<그림 1> 중국정치발전 요소 인과관계도

개혁개방이후 중국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민공사제도의 철폐와 농민생산책임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의 개방 등 경제요소가 중국 정치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경제 구성의 다원화, 직업의 다양화, 사회계층의 분화를 촉진시켰고,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관계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정의의 준수라는 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은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며, 다원화는 정체체제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정치체제의 조정을 통해 경제발전 속도에 순응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덩샤오핑시기 경제발전은 중국의 정치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내적동력 요소였다. 경제발전에 치중한 중국의 발전은 빈부격차, 불균등한 지역발전, 농민공 등의 사회 불균형 문제를 만들었고, 세계화의 조류는 중국 정치발전에 경제요소 외에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

둘째,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회이익의 다원화와 분배방식의 다양화는 계급의 다양화, 중산계급의 대거 출현과 이익주체의 다양화 가치관념의 다양화를 불러왔다. 이는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와 정치참여 경로의 확대, 사회안정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며 정치발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다원화는 공회(工会), 부녀자연맹(妇联), 공청단(共青团) 등의 다양한 이익집단이 생겨났고, 기층민주·사회자치의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었고, 이는 정치생활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익집단(社团)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민주적

22) 史卫民 张小兵 著, 앞의 책, p.672.

방식을 체험하고 분쟁의 해결방법을 익힘으로 시민의식의 함양과 성숙함을 배양할 수 있다.²³⁾ 그와 달리 부정적 영향으로 중국 부실 국영기업을 퇴출은 대량의 실업자와 대기실업자를 만들었고, 노동자의 노동쟁의(劳动争议) 문제를 발생시켰다. 농민의 토지징수와 보상문제 역시 농민의 군체성시위(群体性事件)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발전은 공기와 수자원의 오염은 인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쟁의와 군체성시위, 환경오염 등의 갈등요소와 사회요소는 정부에 대한 ‘사회안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의법치국의 강화, 생태문화 개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정부의 화해사회(和谐社会)건설과 연결된다.

셋째, ‘세계화’는 중국 정치발전의 국제적 압력에서 국제사회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독립자주의 정치발전 노선을 선택하는 외부적 요소이다. 911사건이후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0년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아랍세계의 정치변동은 중국정부에 압박을 가하였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중국정치가 집중한 것은 정부관리 부문에서의 발전이었다. 세계화라는 국제요소는 ‘책임정부’, ‘서비스형 정부’, ‘공공관리 정책’ 등의 제도요소와 결합하여 정치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넷째, 중국공산당의 개혁에 대한 결심과 능력은 중국 정치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공산당은 집정당으로 국가의 사상주도와 조직의 영도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방향성과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책실패는 결국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사회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²⁴⁾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공산당은 국가건설과 정치혁명의 성질과 임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계급투쟁 강령’의 이념을 포기하며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혁명화, 정치화의 과정을 시작하고 혁명당에서 건설당과 집정당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²⁵⁾ 중국공산당은 매5년 주기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중국공산당의 발전전략과 개혁을 추진하였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0기 3중전회에서 경제건설 중심의 노선을 발표하였고, 1982년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자기의 길을 걷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제시하였고, 1987년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확

23) 施雪华, 孙发锋, “对中国特色社会主义发展道路的理论探索—关于中国政治发展的动力, 方式, 途径和手段”, 『马克思主义研究』4期, 2009년, p.28.

24) 史卫民 张小兵著, 《中国政治发展模式的选择》,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3년 1월 143쪽.

25) 엔지룽, 중국 40년 “개혁의 정치발전”, 『성균차이나브리프』, Vol. 6, Issue 4, 2019.

립하였다.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삼개대표론(三个代表)’을 추가하였고,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며 경제사회와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 하는 과학발전관을 제시했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화해사회’건설을 강조했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치주의 국가’, ‘반부패 국가’를 핵심으로 하여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을 제시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2017년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시대(新时代)’를 제시하여 질적생산과 분배위주의 경제를 주장하였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경영제도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당국체제’ 정당요소는 정치발전 과정에서 정책요소와 결합하여 중국의 정치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같이 중국공산당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国情)에 맞는 거버넌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중국 정치발전의 특징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정치발전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점진적 발전노선을 걷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이 선 농촌 후 도시, 선 경제 후 정치, 국가정책의 실행은 지방의 소도시에서 실행하여 성공의 실패여부를 확인 후, 대도시로 옮겨 실행하는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摸着石头过河)’ 점진적 발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점진적 개혁의 장점은:

첫째,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의 핵심 문제가 아닌 기층문제나 외부 문제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이익관계가 복잡하여 큰 사회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내부적 갈등요인에 대한 급진적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기기 보다는 삼농문제나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 또는 하부 조직인 기층의 문제를 해결하며 점차 상부 구조로 문제의 해결범위를 좁혀 간다. 이를 통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정책실현에 통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시범지역을 활용한 정책추진 방식이다.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정책의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면 취소해 버리는 방법으로 개혁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²⁶⁾

셋째, 정책의 연속성이다. 공산당 일당체제의 중국은 집정당의 교체로 인한 발전노선의

변화와 중대 정책의 조정과 같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양당제, 다당제 국가의 당파싸움이나 정권의 획득을 위한 경쟁과 정권의 교체는 내정과 외교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²⁷⁾ 중국 공산당 체제하의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의 보장은 인민의 근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효과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치경제사회 건설에 필요조건이다.

V. 결론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의 정치발전은 점진성, 연속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부 학자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발전의 의지에 비해 정치발전 개혁에 의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국가나 체제는 없다. 국가가 해체되거나 정권이 와해된 국가는 공교롭게도 고정불변의 국가였거나 개혁을 반대하고 변화를 거부한 국가 혹은 체제였다.²⁸⁾ 이는 중국이 점진적이고 안정성의 중시하며 중국의 특수한 국가상황(国情)에 맞추어 변화에 적응하며 정치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반증한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과 특징으로 볼 때 중국의 정치는 민주, 선거, 투표와 같은 일반적인 정치학의 지표로 정치발전을 논하기 보다는, 행정체계의 질서와 효율의 극대화, 법치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 등의 지표에 가치를 두고 정치발전을 봐야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정치발전 요소들의 유기적 조합에 의한 발전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 노선은 경제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생태문명건설, 조화사회 건설 등 중국공산당이 목표로 하는 현대화 사업의 유기적인 조합이라 하겠다.

개혁개방 초기 경제개발을 위한 정치발전에서 지금은 ‘신시대(新時代)를 위한 정치발전이 요구되고, 정치발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세계

26) 陶林, “当代中国政治发展的动力机制探析”, 『党政研究』, 2019년, p.80.

27) 黄其洪, 郑人杰, “当代中国政治模式的独特性及比较优势”, 『中共山西省党校学报』, 第38卷 第6期, 2015년, p.5.

28) 엔지룽, 중국 40년 “개혁의 정치발전”, 『성균차이나브리프』, Vol. 6, Issue 4, 2019.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경제가 최근 성장율이 둔화되고 있고, 경제성장의 둔화는 인민들에게 불안감 조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발전 불균형, 삼농문제(농업, 농촌, 농민), 관료의 부패, 환경문제 등의 내부적 불안요소로 신장 위구르 자치문제와 티베트 달라이라마 문제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는 중국공산당에 인권탄압문제를 제기하는 외부적 압력 요소로 작용한다. 게다가 인터넷의 도입과 발전은 중국이 현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행정의 개선과 서비스형 정부를 위해서, 인민의 정치참여 통로 확대와 의견을 듣는 소통의 의미에서 인터넷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직접참여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인터넷의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되기 쉬워 민주화나 정치참여에 대한 불만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를 통해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의의 통제라는 문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난제 속에서도 중국은 ‘깃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民以食为天(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중국 속담처럼 지금 중국공산당에겐 ‘사회적 불균형’, ‘삶의 질’ 문제해결이 가장 급선무이다.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인민을 위한 서비스형 정부의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의 불안요소와 안정화를 위해 법에 의한 치국, 법의 보안과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2019년 5월 아시아 문화대회(CDAC)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명을 교류를 통해서 다채로워지고 서로를 거울삼아 풍부 해진다(文明因交流而多彩, 文明因互检而丰富)라하고 문명의 교류를 강조하였다. 중국의 국정(国情)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명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이식 받아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과 같이 급진적인 서구 민주주의로의 제도전환보다 체제의 안정성을 이어가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중국정치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陶林, 孙汉侣, “改革开放四十年与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发展道路-基于历程, 成就, 基本经验三个维度”, 『山东农业工程学院学报』, 第36卷, 第5期, 河南大学公共管理学院, 2019년 pp.102-112.

- 吴丽娟, “浅析中国特色政治发展模式”, 『决策与信息』, 2016년 pp.52-59.
- 陶林, “当代中国政治发展的动力机制探析”, 『党政研究』, 2019년, pp.77-85.
- 施雪华, 孙发锋, “对中国特色社会主义发展道路的理论探索-关于中国政治发展的动力, 方式, 途径和手段”, 『马克思主义研究』4期, 2009년, pp.22-28.
- 黄其洪, 郑人杰, “当代中国政治模式的独特性及比较优势”, 『中共山西省党校学报』, 第38卷 第6期, 2015년, pp.3-7.
- 燕继荣 主编, 『发展政治学』第二版,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년.
- 白钢 主编, 『“政策主导型”的渐进式改革』(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1년)
- 史卫民 张小兵著, 『中国政治发展模式的选择』(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3년)
- 邓小平, 『邓小平文选』(北京, 人民出版社, 1993년)
- 이계희, “중국학자들의 중국정치발전론”, 『사회과학 연구』, 제12권(2001,1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pp.151-164.
- 곽덕환, 나태중, “시진핑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전망”, 『동아인문학』, 47(2019), 동아인문학회, pp.531-553.
- 정주영, “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탐색: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는가?”, 『현대중국연구』, 제19집 3호(2017,12), pp.123-161.
- 옌지룽, 중국 40년 “개혁의 정치발전”, 『성균차이나브리프』, Vol. 6, Issue 4, 2019 pp.24-34.
- 김창희, 『비교정치론』(서울, 삼우사, 2005년).